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시편 66(65),1-2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4,22L-33

화답 송 | 시편 16(15),1-2 7과 5,7-8,9-10,11(© 11 7 참조)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뒤편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어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

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 1베드 1,17-21

복음환호송 | 루카 24,32 참조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루카 24,13-35

영성체송 | 루카 24,35 참조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일상으로 돌아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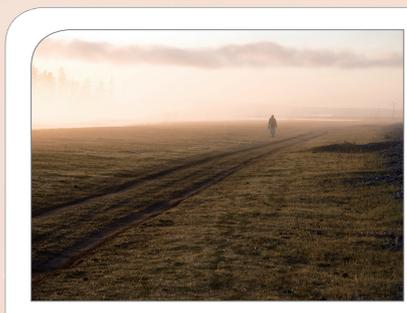
2020년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가 중단되었고, 우리네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목말라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활 제3주일 복음은 루카 24,13-35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주간 첫날, '클레오파스'(루카 24,18)라는 제자와 익명의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루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다고 복음서 저자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스타디온은 185m로 60스타디온은 약 11km입니다. 성인이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5km 정도인데,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지리적·기후적 여건을 고려하면 1시간에 3km 남짓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속 두 제자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서 3시간가량을 터덜터덜 걷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걷는 두 제자의 여정에 동반하는 이가 있지만, 그들은 그 동반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서쪽으로 해가 질 무렵이라 동반자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근심이 깊었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 저자가 전하는 확실한 내용은 그 동반자가 두 제자의 여정 중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

셨다.”(루카 24,27)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속 예언들을 풀어 설명해 주는 동반자입니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어 그 동반자는 두 제자와 함께 밤을 묵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루카 24,30)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고 떼어 나누는 행위는 최후의 만찬 때 열두 제자에게 명하셨던 예수님의 성찬례, 즉 성체성사인 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루카 24,31)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그리고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쪼개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두 제자는 고통의 여정 중에 자신들을 동반해 준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 속 익명의 제자와 동일시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옴은 지난 시간의 고통과 절망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옴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것들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옴은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고통과 절망 앞에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속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루카 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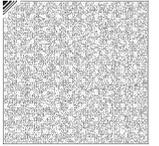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동이 뜨기 시작하면서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이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두웠던 고통과 고난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정녕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총을 주소서.



유동희 바오로 | 가톨릭사진가회



하정화 비비안나
장애인주일학교 자모회, 양천성당



| 엄마, 교리 해요

소중한 아들은 또래보다 더딘 청년이지만,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몇 해 전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일학교 졸업 후에는 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당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바람을 귀 기울여 주는 분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은 주일미사에 동행할 때마다 “엄마, 교리 해요. 교리 할 수 있어요”라며 졸랐지만,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청년 미사도 기웃거리려 보았으나 몸만 청년이지 생각이 어린 아들을 청년 미사에 데리고 다니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미사를 하는 본당들도 찾아가 보았으나 멀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성체조배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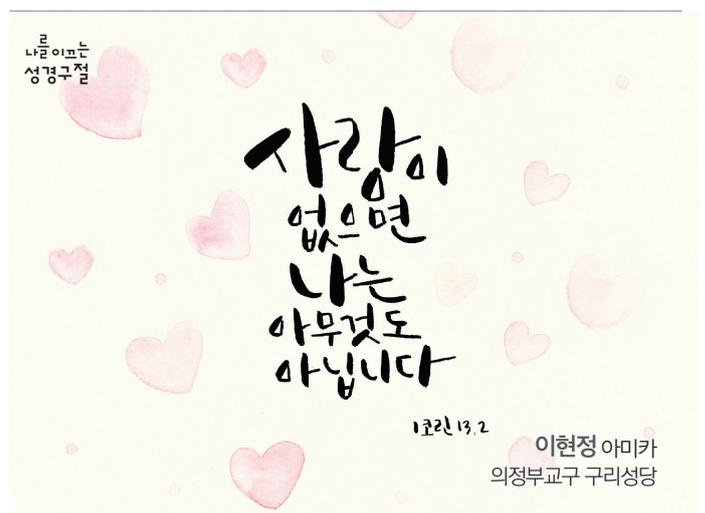
그즈음 교구 공모전에 글을 써냈더니 하느님께서 최우수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년엔 ‘소명을 찾아준 아이 청년’이란 제목으로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에 응모했는데 가슴 떨리게 전국 대상이라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수상소감을 써서 가톨릭평화방송으로 보내고 원고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시상식 유튜브도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작년 2월에 따뜻한 신부님이 본당에 오시어 기쁜 마음으로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삶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그간에 수상한 글들이 실린 단행본들을 신부님께 드렸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구 장애인 신앙교육부의 도움이 더해져 작년 가을 저희 본당에도 ‘임마누엘 주일학교’라는 이름의 교리반이 생겼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그동안 집 근처 본당을 두고도 멀리 타 본당을 다녔는데, 우리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니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주시리라.”(시편 37,5) 주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긴 기다림과 기도와 노력 끝에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밝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모인 이 주일학교에는 나눔이 충만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애써주십니다.

작년 성탄에는 음악 발표회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맞춰 노래와 율동을 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공연을 보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이제 그토록 원하던 가톨릭 교리도 배우고, 음악과 미술 수업도 합니다. 아들 덕분에 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들도 하느님의 귀한 형제자매입니다. 장애인이 어디에 있어도 달리 보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은혜로운 미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임마누엘 주일학교의 행진과 발전을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 주일학교가 곳곳에 꽃피우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여 이끌어 주시며 은총으로 함께하는 주님과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찬미와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Q: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란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건가요?

A: 우선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으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혼만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초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악의 원천이며 죄로 가득한 덩어리로 보면서 육신은 부활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가짜 육신을 취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을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맞서 우리의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전인적인 부활, 육신까지 포함한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육체가 단순하게 재생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997항을 보면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 죽

음으로 사람의 육신은 썩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 영광스럽게 된 그 육신과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전능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에 결합시키심으로써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육신에 돌려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내어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무관한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이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요한 5,29)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목국 기획연구팀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루카 24,35-40)

저산너머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도

2020 감독 최종태

영화 <저 산 너머>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오세암’ 등 수많은 동화책을 쓰신 정채봉 작가님은 1993년,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소재로 한 동화 <저 산 너머>를 소년한국일보에 연재하였습니다. 집필에 앞서 정채봉 작가님은 김 추기경님과 함께 추기경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경북 군위 용기골 마을로 추억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추기경님께 직접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재를 마친 후 책 출간을 위해 찾아온 정채봉 작가님께 김수환 추기경님은 ‘지금은 남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우니 나 가고 난 뒤에 책으로 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화 <저 산 너머>는 정채봉 작가님과 김수환 추기경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이후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추기경님이 선종하시고 11년이 지난 후에 영화로까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적 이름은 순환이었습니다. 순환의 아버지는 평생을 가난한 떠돌이 용기장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병고 끝에 돌아가시게 되자, 홀로 남은 어머니가 행상을 다니며 힘겹게 늦둥이 아들형제 순환과 동환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생처음 사제 서품식을 보게 된 어머니는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어떤 소명을 느끼고 두 어린 아들에게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늦둥이 두 아들의 마음 밭에 천주님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동환은 순순히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만, 순환은 마음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살아생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기록을 찾지 못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 김 추기경님의 본가인 광산김씨 종친회는 오랜 시간 조사 작업 끝에 마침내 추기경님의 뿌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머니가 늦둥이 두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바랬던 것도 바로 그 뿌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신 후 추기경님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몇 작품 있었지만, 본격 극영화는 <저 산 너머>가 최초입니다. 추기경님은 사제가 되시고 온 생애를 가난한 이웃들과 군사독재와 산업화를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추기경님의 평소 염원처럼 영화 <저 산 너머>에서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점점 사라

져가는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영성(靈性)’과 ‘동심(童心)’과 ‘자연(自然)’입니다.

생텍쥐페리는 1943년에 발간된 ‘어린 왕자’의 서문에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라 말합니다. 영화 <저 산 너머> 또한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어린 왕자’가 2차 대전 중 발간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혼돈과 절망 속에 빠져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화가 모든 이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종태 베드로 | 영화감독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재개

서울대교구는 지난 4월 20일, 교구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4월 23일(목)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 하며 “단체 활동과 모임 관련해서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을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미사 재개 시 유의 사항’(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미사 참석자 구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일 미사 참례 의무 제외).

- 1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신자
- 2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신자
- 3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자
- 4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생

※ 미사 전 준비

- 1 성체 분배 봉사자는 미사 전후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2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3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의 역학 조사를 대비하여, 미사 참석자는 참석 기록을 남깁니다(다른 본당 소속인 경우, 소속 본당과 이름도 적습니다).

※ 미사 중 유의사항

- 1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2 성체 분배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3 미사 중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 4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5 미사 중에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 6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아멘’을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합니다).
- 7 신자들은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습니다.
- 8 성경과 성가집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을 사용하며, 현금 봉투 등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9 미사 중 본인이 사용한 주보는 성당에 두고 가지 않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미사 외 활동은 모두 금지합니다.

미사 재개 시
유의사항 QR

5월1일(금)은 ‘근로자의 날’로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 발표

친애하는 불자 대중 여러분!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진제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로 고승대덕 스님들께도 봉축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지만, 우리 종교계가 솔선수범하며 국난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불교가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를 이동하는 대승적 선택을 하신 데 큰 박수를 보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와 인류의 행복을 바라는 종교의 가치는 불교나 천주교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으로 초래되는 불신과 원망, 분노 대신 자비와 평화, 사랑이 세상 곳곳에 퍼지도록 종교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6년 5월2일 김재용 요셉 신부(29세)
- 1986년 4월29일 봉희만 안토니오 신부(70세)
- 1993년 4월27일 김정수 레오 신부(60세)
- 2017년 4월27일 홍문택 베르나르도 신부(64세)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채널 QR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카오톡 실행하기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채널 추가하기

Ch

서울주보

+



서울주보

친구 358명

채널 추가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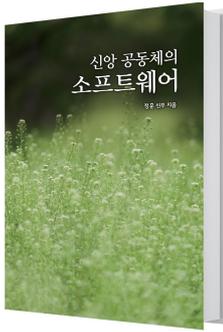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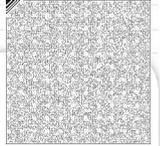
채팅하기



채널 추가



웹사이트



신간
신앙 공동체의 소프트웨어

정훈 지음
기쁜소식 | 288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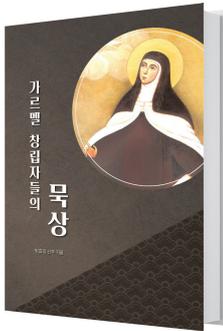
이 책은 신앙 공동체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봉사하고, 십자가로 자신의 행복을 확인해 나가면서 자기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양심에 자극을 받아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신간
말씀으로 하는 기도

방효익 지음
기쁜소식 | 428쪽 | 1만6천원
문의: 02)762-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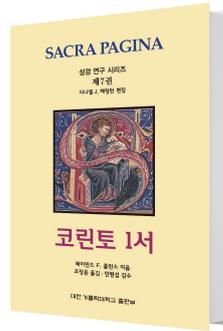
수원교구 방효익 신부의 사제 수품 40주년 기념집이다. '거룩한 독서'를 바탕으로, 특별히 성경을 기초로 하여 기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참 의미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본질이라고 말한다.



신간
가르멜 창립자들의 묵상

방효익 지음
기쁜소식 | 112쪽 | 9천원
문의: 02)762-1194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은 성경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묵상기도를 했는지 정리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도의 스승들께서 가르쳐주시는 묵상에 대한 가르침은, 기도에 대한 열망은 많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간
코린토 1서

레이먼드 F. 콜린스 지음 | 조장윤 옮김
대전가톨릭대학교출판부 | 1064쪽
2만5천원 | 문의: 02)762-1194

Sacra Pagina 성경 연구 시리즈 제7권 코린토 1서는 바오로의 가장 흥미로운 서간들 중 하나이다. 헬레니즘 세계 안에서 실제적인 당면 과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쓴 헬레니즘 서간으로서, 바오로가 그 자신의 시대에 참으로 서간을 쓰는 기법을 보여준 '서간 작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간
고해성사의 소프트웨어 I (개정판)

정훈 지음
기쁜소식 | 340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죄와 투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고해성사라는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무기사용법(고해성사)을 숙련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가르쳐 준다. 소프트웨어 시리즈에는 신앙공동체의 소프트웨어, 일상기도의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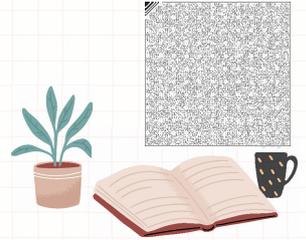
신간
소소돌방

강신성 지음
바오로딸 | 176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도장 공방을 운영하는 지은이가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상 등을 단순한 그림과 짧은 글로 표현한 책이다. 작가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비교당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신념, 신앙을 '도장'이라는 예술 작품에 새겨 넣는다.



온유하신 성모님의 사랑이 담긴 성모 성월 추천 도서



성모 성월 추천 도서

가시를 빼내시는 성모님

치유의 손길을 청하는 9일 기도

베르나르-마리 지음
조연희 옮김 | 10,000원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9일 간의 영적 순례
우리의 몸에 박힌 가시와 달리 마음속에 박힌 가시는 삶에 큰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책은 9일 기도의 여정 속에서 성모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봉헌하게 해줍니다. 지극히 복되신 성모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가시관을 벗기셨듯이, 우리 삶의 가시 또한 빼내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 추천 도서

자녀 축복 노트

자녀의 앞날을 밝히는 100일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10,000원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 가득한 앞날을 선물하세요!
소중한 우리 자녀를 위해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자녀 축복 노트》는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를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하느님의 축복'을 정성스럽게 청해 보세요.

신심이 깊어지는 묵상 도서 추천



가시 속의 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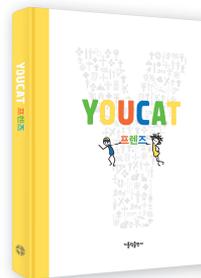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지음
강대인 옮김 | 12,000원



기쁨이 가득한 매일 성모님 묵상

찰스 G. 페렌바흐 지음
강대인 옮김 | 10,000원

우리 아이의 신앙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



YOUCAT 프렌즈

YOUCAT 재단 지음
이영제 옮김 | 18,000원



내 친구 성경 스티커북

크리스 스펀른 지음
김경은 옮김 | 9,000원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가족

가정은 최초의 교회이자 사랑을 배우는 거룩한 곳입니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의 근본이 되는 '가정'에 대해 새롭게 묵상해 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따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 성장하는 신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강대인 옮김 | 8,800원



▲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365일 묵상 시리즈

